인도인 10만명 불교로 개종

'인도 북부 델리로부터 남부 하이드라바드에 이르기까지!'

최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정부가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집어넣는 종교법을 개정하자 인도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본지 588호 16면 기사 참조), 불교 개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개종 움직임은 올해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초대 법무장관에 올랐던 B.R 암베드카르의 불교도 개종 50주년을 맞아 인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개종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불교의 아버지' 암베드카르를 추모하는 '암베드카 2006(ambedkar2006.blogspot.com)'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KSR 무르티의 주도로 10월 14일 암베드카르 기념상 앞에서 개최된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의 불

암베드카르 개종 50주년

印 전역서 대규모 행사

교 개종식에서 10만명이 개종했다"며 "고(故) 암베드카르 박사의 개종 50주년인 이날 개종식에는 올해 들어 참석인원이 가장 많이 참가했다"고 부디스트채널이 10월 9일자로 이 블로그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인도 동북부 지역의 나구푸르에서도 같은 날 열린 '세계종교자유의 날' 행사에서 수만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개종식에 참가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더트 인터넷판 10월 13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하이드라바드 개종식에서는 남아시아의 근본불교권인 인도에서 처음으로 중국 선사가 초청됐다. 불교일간지 '르엔찌엔푸바오(人間福報)'지 10월 16일자에 따르면, 대만 불광산사의 성윈(聖雲) 스님은 이날 개종식에서 "인도는 부처님의 조국이며 모든 불제자가 찾아가야 할 곳"이라며 "오늘 개종한 인도불자들은 자기 불성을 발현하고 불교의 자비, 평등, 상호평화정신을 중히 끌어안아 인도 전역을 기쁨과 융화의 땅으로 만들라"고 법문했다.

김철우 기자

가로 11㎞, 세로 5㎞에 이르는 거대한 유적지 나란다 대학터. 중국의 현장 법사, 티베트불교의 창시자 상따라끄쉬따 스님이 공부했던 곳으로, 대승불교의 모태가 된 곳이다.

세계 최초 불교대 인도 나란다대학

복원 움직임 '꿈틀'

세계 최초 · 최대의 불교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이 복원된다.

최근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가 잇따라 인도 비하르주에 위치한 나란다 대학의 재건에 강력한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대학 복원의 움직임이 '꿈틀' 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

인도 비하르 주의 일간지 '파트나 데일리(Patna Daily)'는 "상가포르 대외담당 국무장관 바라지 사다쉬반(Balaji Sadashivan)이 9월 26일 파트나에서 수석장관 니티쉬 쿠마르(Nitish Kumar)를 만나 나란다 대학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살리는 사업과 비하르 주에 있는 불교 유적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싱가포르 정부가 보드가야, 라즈기르 및 나란다를 포함해 비하르 주에 있는 불교유적 개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는 11월 18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나란다 대학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복원 지원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IANS 통신은 10월 6일, "인도 주재 일본 대사 야스쿠니 에노키가 이달 말 이틀 일정으로 비하르 주를 공식 방문해 나란다에 대학교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비하르 주에서의 투자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복원 비

싱가포르 · 일본 정부, 잇따라 투자 의향 밝혀

印 주정부 "긍정적"… 일부선 "관광용" 의구심

용으로 45억 루피아(한화 4억5천만원)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재건 범위도 나란다 전통 교육방식 재현까지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가 나란다 대학 복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불교성지 복원의 순수한 의미를 비롯해 비하르 주 수석장관 니티쉬 쿠마르가 고향인 나란다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싱가포르 국무장관 사다쉬반이 '파트나 데일리' 지에서 밝힌 "전문가팀이 비하르 주를 방문해 관광, 무역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겠다"는 말을 놓고,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의 나란다 대학 복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한국 관광업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나란다 대학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수십만명이 이곳을 관광한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담마난다 스님 후임에 담마라타나 스님 취임

회교국 말레이시아에서 포교에 진력해 오다 최근 입적한 담마난다 스님의 후임으로, 담마라타나(Dhammaratana, 이하 라타나) 스님이 10월 8일 쿠알라룸푸르 브릭필드에 있는 마하 비하라(Maha Vihara)의 주지로 취임했다.

말레이시아 영문 일간지 '스타' 지는 "8월 31일 세랍 87세로 입적한 담마난다 스님에 이에 라타나 스님이 뒤를 잇게 됐다"고 10월 9일자로 보도했다.

라타나 스님은 '스타'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젊은 세대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던 은사스님의 지도력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과 부모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사아 담마난다 스님의 뒤를 이어 마하 비하라의 주지가 된 담마라타나 스님이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라타나 스님은 1948년 7월 스리랑카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3월부터 마하 비하라에서 주석해왔다. 김철우 기자

이스라엘에 '불교센터' 개원

극동아시아와 교류 목적

유대교의 성지인 이스라엘에 '불교연구센터'가 유일하게 개원한다.

말레이시아 인터넷 뉴스포털 부디스트채널은 "이스라엘에 전례 없이 '불교연구센터(ICSB)'가 문을 열어, 불교연구의 불모지인 중동지역에 희망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불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조직화 단계인 이스라엘 불교연구센터는 '중동에 극동을 소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영리 단체로 종교 및 문화교류연구협회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이스라엘에 부는 불교 바람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교' 신자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유일신교인 유대교 신자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보복'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대 아랍 ·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에도 자비의 가르침이 점차로 퍼져나가고 있다. 법정 스님도 인도 기행중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다'고 <인도기행>에서 말한 적이 있고, 외국의 조용한 사찰을 찾아 참선 수행을 하며 자기 연마를 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소식도 자주 듣는다.

적하기 시작하였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신(神)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믿고 있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똑같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육 기회는 예전 어느 시기에 비해 넓어졌지만, 우리들은 지극히 원시적인 신앙 행태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윤회에 대한 믿음'과 불교의 '외부에 열린 성격'이 근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스님은 또한 수강자들의 유대교 신앙과 스님의 가르침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완벽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참선 수행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수행모임서 텐진 팔모 스님 초청 강연

종교 배타성 벗어나 평화로운 미래 열렸으면

10월 11일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지 리안 나델(Ryan Nadel)기자는 최초의 서양 출신 비구니 텐진 팔모(Tenzin Palmo) 스님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법우회(The Dharma Friends of Israel)'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사를 초빙해서 법문을 듣고 참선 · 명상 지도를 받아왔는데, 지난 9월 텐진 팔모 스님을 초청해 3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교 강의를 듣고 참선 지도를 받았다.

팔모 스님은 "저는 런던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며 수강자들과의 가까운 인연을 강조하며 편안한 어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저는 제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과 이슬람의 <코란>을 읽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제가 유일신에 경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체험과 출가 이후의 수행 과정을 소개한 스님은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지

이스라엘 방문 동안 이루어진 텐진 팔모 스님의 법문은 주로 참선 명상의 위력과 중요성에 집중되었다. 스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며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선 명상은 2단계 수행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 그 자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선민주의(選民主義)적 종교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이 수천 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독선적 · 배타적 종교가 아집이 되어 주변 국가 · 민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막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집의 주인공과 희생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스라엘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조직되고, 스님들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설법을 듣고 참선 지도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한 가닥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자유기고가

INVITATION

제4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청소년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삼도 따사롭고 풍요롭기를 기원 드립니다.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국가 장래를 걸머질 청소년들이 잘 육성되고 보호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시 : 2006년 11월 03일(금) PM 1:00~6:00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서울시청 뒤편)

행사프로그램

제1부

사 회 허안순 / 수화 해성스님

등 록 13:00~13:30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 이종욱 이사장/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축 사 : 현성 큰스님/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총재, 전 청소년 단체협의회 회장
인사말 : 김용택 소장/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강연 14:00~14:20
한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방향
- 김성이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특별강연
일본 불교아동청소년복지의 발전과 시사 14:20~14:40
- 박광준 교수/ 일본경도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미국 종교계의 청소년복지사업 실태와 방향 14:40~15:00
- 이은주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휴식 15:00~15:10

제2부

사 회 : 황진수 한성대학교 교수/ 전 행정대학원 원장
발 표 1 : 기독교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5:10~15:40
김종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지정토론 : 노충래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5:40~16:0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발 표 2 : 가톨릭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6:00~16:30
김경히 신부 / 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신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
지정토론 : 김정미 수녀 / 성심디딤돌 청소년쉼터 소장 16:30~16:5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발 표 3 : 불교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6:50~17:20
박경일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정토론 : 김용철 교수 / 중앙승가대학교 17:20~17:4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종합토론 김용택 교수/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17:40~18:00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폐 회 18:00~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
부 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 장 김용택 합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
재단 : Tel. 02)517-3052 / FAX. 02)542-0519
연구소 : Tel. 02)517-3045 / FAX. 02)515-3021
홈페이지 : http://www.chbuddha.com